

#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

## Single Mother Family's Mother-Adolescent Conflicts,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김 오 남\*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im, Oh Nam  
Dept. of Social Welfare, Daebu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general trends and the correlations of parent-child conflicts, coping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nd to analyze the variables explaining relationships between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e subjects were 196 dyad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who reside in Gwangju city and Jeonnam are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t-Test, Pearson's  $r$ , and multiple regression by SP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core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had conflicts and emotion-focused copings lower than median. Another score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had significantly higher problem solving focused copings and emotion-focused copings than their children except life satisfaction;

2. Conflicts, coping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a single mother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ose of children;

3. Life satisfaction of single mothers depends on the reason for spouse-loss, their own education background, and problem solving-focused copings. Also, that of children depends on problem solving-focused copings, mother-child conflicts, and the mothers' education. Depression of single mothers is dependent upon mother-child conflicts, emotion-focused copings, and mothers' education. Also, that of children is upon mother-child conflicts, emotion-focused copings, mothers' education, and problem solving-focused copings.

**Key words :** single mother family, parent-adolescent conflicts, copings, psychological well-being

## I. 서론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과 2002년 사이 이혼가구수는 4만 5천에서 14만 5천으로 3.5배정도 증가하였고, 사별가구수는 24만 2천에서 24만 6천으로 증가하였고, 기혼여성의 12.8%와 기혼남성의 1.8%가 사별가구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3). 또한 1993년 1.3이던 조이혼율이 불과 십여년 만인 2003년에는 3.5로 무려 3배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통계청, 2003).

최근 이러한 가족해체의 광범위한 확산은 전체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이 증가되었고 이는 바로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화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여성가장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Hanson, McLanahan & Thomson, 1998). 이러한 빈곤과 함께 여성가장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소득의 원천이자 사회적 지원의 주요 통로였던 남성부양자를 통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혜택을 상실함과 동시에 가족자원체계의 감소, 노동시장전반의 성차별, 이중적인 복지체계, 사회의 부정적 인식, 주택 및 의료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부담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고, 주거나 의료문제에 있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송다영, 2003; Hetherington & Anderson, 1989).

\* Corresponding author : Kim, Oh Nam,  
Tel : 82-61-469-1235, Fax : 82-61-469-1238  
E-mail : onk@mail.daebul.ac.kr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빈곤,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 대처, 적응 등을 주로 다루었으나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관계, 모의 적응, 이혼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프로그램 등의 개발연구들(성정현, 2002; 정수경, 2001; 주소희, 2002; 최선화, 2000)도 등장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천과 적응점을 찾고자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한편 가족원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궁극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생활만족도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것(장재정, 1987)으로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되는데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심리적 안녕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안녕은 조화로운 모자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자녀행동이 보이는 경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Umberson, 1989). 또한 좋은 모자녀관계는 갈등과 붕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잘 적응된 행동을 유도한다(Peterson & Zill, 1986)고 하였다. 적절하고 많은 대처방식과 전략은 높은 적응(한경혜, 1993; Berman & Turk, 1981)과 관련되었다. 이혼이나 별거한 가족 자녀의 경우에도 문제대처에 종교적 도움, 문제회피나 방관, 친구나 교사의 도움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회피나 방관 방식을 취할 때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김영희, 1995; Wallerstein, 2000 주소희, 2002 재인용).

이와 같이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안녕 증진을 위해서는 모자녀갈등과 대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여성 한부모가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을 역기능적 가족유형으로 간주하여 사별이나 이혼을 인생의 좌절이나 실패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고 성공이나 성취,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들을 간과하였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면에 치중되어 가족원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를 분석하거나 가족상호작용을 면밀히 고려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 부모자신의 개인적 측면도 중요하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그들 자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최혜경(1997)은 가족관계가 한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수준의 결정적 요소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의 갈등과 대처, 심리적 안녕과 관련하여 모자녀 차이와 유사성을 밝혀낸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안녕 증진을 위해서는 모

자녀갈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시기보다는 모와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조성연, 2004;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의 결과에 착안하여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모자녀 갈등, 대처(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와 심리적 안녕(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를 파악하고, 어머니와 자녀의 변인간 상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모자녀갈등과 대처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은 어머니와 자녀의 변인간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과 대처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갈등과 대처

한부모가족 모자녀관계는 가족원의 내외적 문제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건강 및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부모가족 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되는데 첫째,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자녀관계를 빈번한 긴장관계로 보고 있는 경우로, Hetherington, Cox와 Cox(1978)는 이혼 후 1년 동안 어머니는 자녀에게 애정적이지 않았고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거칠게 처벌하였으나 훈육에서도 비밀관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혼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는 다른 가족유형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자녀 행동문제를 보고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패턴이 더 통제적이고 덜 지지적이며(Henry, 1994), 종종 자녀감독과 훈육영역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ons et al., 1994). 비록 모자녀갈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자녀가 청소년이 되거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경우 또다른 긴장이 나타난다(Hetherington & Clingempeel, 1992)고 하여 한

부모가족 어머니와 자녀의 긴장관계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한부모가족전과 후의 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herlin, Furstenberg, Chase-Lansdale, Kierman, Robins, Morrison과 Teitler(1991)는 이혼한 가족의 자녀는 일반가족의 자녀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과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며 유사하게 Furstenberg과 Teitler(1994)도 결혼해체이전과 이혼 후의 자녀의 어려움은 이혼전 가족의 부정적 특성과 관련 된다고 하였다. 만일 이혼상황이 적의 있는 태도이거나 부부 모두 부모역할에 상호작용을 하였다면 자녀는 행동이나 감정에 취약하였다. 또한 자녀는 어머니보다 가족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해경, 1997).

한부모가족 모자녀관계에 나타나는 변인별 차이를 보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3세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유대는 더 약하다고 하였으며 (Burgess, 1988; White, 1992 재인용), 한부모가족 청소년기 자녀들은 어머니와 다소 갈등이 존재하였다(권복순, 2000; 조성연, 2004). 가족소득이 낮은 경우 모자녀관계는 더 악화되며, 역할부담을 겪고 있는 어머니는 여가에 덜 시간을 보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Risman & Park, 1988). 모의 연령이 낮은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은 경우, 사별보다는 이혼한 경우에 지지적이지 않은 모자녀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Kline, Johnston & Tschann, 1991).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이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그 대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Berman & Turk(1981)는 사회활동, 감정표현, 독립심을 기르는 대처방식이 생활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경혜(1993)는 위기사건에 적응하는데 대처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적응을 보고하였고, Clark, Sivilski & Weiner(1986)는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문제를 지적하고 원조를 구하는 대응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가 잘 되지 않을 때 우울이나 불안요소가 높게 나타나고 종교로부터 지지를 받은 경우와 적극적인 대처의 경우가 수동적 대처보다 문제상황에 대한 높은 적응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더 쉽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선, 1991). 특히 조희선(1991)은 대처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정서적 대처보다 문제해결적 대처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경우, 문제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방식 중 종교

적 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문제회피나 방관, 친구나 교사의 도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문제회피나 방관하는 방식을 취할 때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김영희, 김갑숙, 최희선, 1995). 반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친척·가족의 도움, 종교, 친구의 도움 순으로 나타났는데(정현숙, 1993; 정현숙·서동인, 1996) 특히 이혼자녀의 경우에 더욱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 즉 학년이 높은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는 대처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종교가 있고 여학생인 경우 종교적 도움을 통한 대처와 친구·교사의 도움전략을 사용하였다(정현숙, 1993; 김영희·김갑숙·최희선·1996).

## 2. 여성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안녕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행복, 적응, 삶의 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 생활주기나 시대적 배경, 공간적 환경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심리적 안녕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접근 방법이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 긍정적 면을 강조한 입장으로, 안녕감의 중요 예견변인으로서 객관적 조건 및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생활만족도를 강조한 경우이다(이희정·이숙현, 1995; Diener, 1984; Kopp & Ruzicka, 1993).

둘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보는 입장으로 정서적, 주관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심리적 안녕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분석하였다(장재정, 1987; Andrew & Withey, 1976; Greene & Feld, 1989). 따라서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척도가 일관성있게 사용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최근의 연구들은 생활만족도, 자존감 등의 긍정적 측면과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심리적 안녕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심리적 안녕을 다룬 많은 연구(Burden, 1986; Fine, Mckenry & Donnelly, 1992; Greene & Feld, 1989)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측면을 중심으로 심리적 안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Demo & Acock, 1996; Gove & Shin, 1989; Mastekaasa, 1994). 관련 개념을 보면 긍정적 측

면을 가진 생활만족도의 경우에 자존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한경혜, 1993; Bursik, 1991; Gove & Shin, 1989; Mastekaasa, 1994), 또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외로움, 소외 등 주로 부정적인 면을 다뤄 온 선행연구들(한경혜, 1993; Marks, 1995; Shapiro, 1996)에서는 우울 등의 변인점수가 낮은 경우 심리적 안녕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가 '부적응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지적도 있다(Price & Mckenry, 1988).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이 낮아지며 이혼 후 적응이 어렵다(Parker, 1994)고 한 반면,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이 높은 심리적 안녕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최해경, 1997; Greene & Feld, 1989)도 있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심리적 안녕이 높게 나타나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최해경, 1997; Demo & Acock, 1996; Gove & Shin, 1989). 홀로된 원인에서는 사별한 어머니가 이혼한 어머니보다 심리적 안녕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Doherty, Su & Needle, 1989), 우울은 사별이나 이혼한 한부모가족 어머니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증상은 약화되었다(DeGarmo & Kiston, 1996; Gove & Shin, 1989; Marks, 1995). 또한 자녀는 어머니에게 지지원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녀와의 증가된 접촉이나 개방적인 대화는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3; Demo & Acock, 1996; Weiss, 1979).

자녀의 경우 한부모가족 원인에 따라 심리적 안녕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혼한 가족의 자녀는 공격적, 일탈적 행동 등 외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초조,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정서적 부적응도 나타났다(Hethering & Stanley-Hagan, 1999). 또한 부사망 가족의 자녀는 위축, 퇴행행동을 많이 보였다(Kiston & Morgan, 1990). 이혼한 가족 자녀의 경우, 이혼시 연령이 어릴수록 그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삼연, 2002; Kline et al., 1991), 이혼 후 경과기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이 잘 된다고 한 연구(Hetherington & Clingempeel, 1992)와 적응상태가 유동적이다(이삼연, 2002)는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윙통성과 가족유대가 좋을수록, 부모지지가 적절하고 모의 처벌이 적을수록,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Henry, 1994; Kline et al., 1991). 모의 양육기술, 적응상태,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어머니의 태도가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정현숙, 1993; Booth & Amato, 1991; Machida &

Holloway, 1991)을 알 수 있다.

### 3.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

#### 1)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갈등과 심리적 안녕

한부모가족 모자녀갈등은 심리적 안녕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Umberson, 1989). 즉 모자녀갈등은 심리적 안녕을 감소시키며(Umberson, 1989), 부정적 자녀행동을 유도하며 반면 친밀한 모자녀관계는 갈등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Peterson & Zill, 1986)고 하였다. Kline 등(1991)의 연구에서도 일반가족이든 한부모가족이든 강요적이고 거부적인 모자녀관계는 자녀행동과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다 고 하였다. 모자녀간 상호부정적인 상호작용하는 경우 자녀는 더 이타적이고 비순응적인 행동을 나타내었다(Kline et al., 1991; Webster-Stratton, 1989).

한부모가족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도 자녀에 대한 모의 통제가 부족한 경우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더 나타내었다(Machida & Holloway, 1991). 높은 갈등이 있는 이혼가족의 자녀는 심리적 안녕이 낮게 나타났다며 부모와 협력하거나 갈등이 낮을 경우 이혼 후 잘 적응하였다(Amato, 1993). 또한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훈육의 일관성, 감독, 엄한 훈육, 기준설정은 자녀의 외현적 문제(비사회적 행동-학교문제, 퇴학, 공격지향성)와 내면적 문제(우울)에 영향을 주었다(Simons, Whitebeck, Beaman & Conger, 1994).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자녀와의 개방적 대화는 생활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신체적 무기력 및 외로움과 자신에 대한 비난의 감소역할을 한다고 하였다(한경혜, 1993). 즉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는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음을 알 수 있다.

#### 2) 여성 한부모가족의 대처와 심리적 안녕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이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Berman과 Turk(1981)는 사회활동, 학습, 개인적 이해, 감정표현, 독립성 및 가정활동의 6개 대처방식을 추출하여 연구한 결과 생활만족도에는 사회활동, 가정생활, 감정표현 및 독립심 대처방식이 영향을 미쳤고, 정서상태에는 사회활동, 감정표현, 독립심을 기르는 대응방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한경혜(1993)는 적응에 대처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적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대처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문제해결방식 중 여성 한부모가족 자녀는 종교적 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문제회피나 방관하는 방식을 취할 때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김영희, 1995). 특히 이혼가족 자녀의 경우 자율적 해결방식의 대처행동이 나타났고,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경우 우울이 낮았다(정현숙, 1993). Amato(1993)는 자녀적응을 문제와 대처차원의 개념으로 규정짓고 자녀가 위기적 사건에 직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해 적응양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과 대처의 관련성과 이들 변인들이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어머니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자녀이다. 청소년기 모와의 갈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청소년기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홀로된 원인과 자녀의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196쌍 392명을 조사하였으며 표집과정에서 지역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전남 3개군의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고,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도움으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선별하여 자녀에게 자녀용과 어머니용 설문지를 각각 배부하여 응답토록 하였는데 어머니용은 집에 가서 기입토록 하였으며 설문은 끝낸 후 밀봉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2003년 11월 2일에서 10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2003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30부를 배부하여 205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재가 완전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19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 어머니연령은 40대가 전체의 63.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 50대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에서는 중졸과 고졸이 34.8%, 37.5%로 각각 나타났고, 직업에서 자영업·판매직이 27.8%로 가장 많았으며, 서서비스직이 24.0%, 주부도 18.8%나 되었다. 월평균 소득은 31-60만원이하가 34.0%, 61-100만원이 43.8%로 저소득층이 분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홀로된 기간은 2-5년이 50.3%

를 나타내었고 6-9년은 24.2%, 10-14년은 22.3%를 각각 나타내었다. 홀로된 원인은 사별이 64.4%, 이혼이 35.6%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약간 더 많이 조사되어 남학생이 47.7%, 여학생이 52.3%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공 연구자들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hronbach'a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모연령, 모교육수준, 월평균소득, 모직업, 홀로된 원인, 홀로된 기간, 자녀의 성별 등을 조사하였다.

##### 2) 여성 한부모가족 모자녀갈등 척도

모자녀간 갈등은 Barber(1994)의 부모자녀간 갈등척도(Parent-Children Conflict Scale)를 사용하는데 자녀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자녀의 옷입는 방식,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 현재 자녀가 어울리고 있는 동성친구, 자녀의 귀가시간, 집안일에 대한 서로의 의견충돌, 자녀의 성욕구나 성행동, 자녀의 술·담배 등의 허용여부(2문항), 자녀의 돈쓰는 방식, 자녀의 학교생활 등의 모자녀 갈등과 자녀가 가족과 다정하게 지내지 못하는 내용 등에 관한 갈등정도를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 범위는 10점-50점이다.

##### 3) 갈등대처 척도

대처행동의 척도는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와 Gruen(1986), Billing와 Moos(1984) 등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크게 두 영역인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로 나누었다. 정서적 대처행동에는 운명주의, 정서표출, 환상적 회피, 지적 부인, 자기책망, 사회적 비교, 진정요법, 방어, 회화, 우유부단, 지연, 위축, 신앙 등 12문항과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에는 이성적 행동, 대안적 선회, 도움요청, 인내, 긍정적 사고, 단계적 해결, 대체, 유연성, 재충전, 자아적용, 적극적 소거 등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 범위는 각

각 12-60점, 11점-55점이다.

#### 4) 심리적 안녕 척도

심리적 안녕척도는 생활만족도와 우울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생활만족도는 Bradburn(1969)의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척도를 수정하여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만족, 어머니(자녀)와의 대화만족, 나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만족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2점-60점이다.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가시게 느끼지 않았던 일에 대해 귀찮게 느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도 우울한 기분, 일에 몰두가 안됨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범위는 14점-7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성 한부모가족 어머니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문항들간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한 Chronbach's  $\alpha$  값은 .704에서 .894 범위 안으로 산출되었다.

###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일반적 경향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일반적 경향 및 모자녀간 차이는 <표 1>과 같다.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의 전체점수는 중간(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부모가족 모자녀간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갈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자녀갈등에 있어 영역별로 보면 어머니와 자녀집단간 자녀의 이성친구, 자녀 술·담배허용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자녀보다 대체로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로서 청소년 시기에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 친구들과의 술담배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의 표현과 걱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

<표 1> 한부모가족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일반적 경향 및 차이

변 인	편 모 M(SD)	자 녀 M(SD)	t	
모자녀 갈등	자녀 웃입는 방식	2.23( .45)	2.26( .51)	1.01
	자녀의 이성친구	2.78( .56)	2.59( .61)	2.02*
	자녀의 동성친구	2.38( .61)	2.31( .48)	.98
	자녀귀가시간	2.55( .49)	2.48( .53)	1.13
	집안일의 의견충돌	2.27( .38)	2.23( .38)	.84
	자녀성욕구·성행동	2.75( .59)	2.68( .54)	1.07
	자녀술·담배허용여부	2.83( .62)	2.68( .71)	2.33**
	자녀 돈쓰는 방식	2.59( .53)	2.56( .41)	.94
	자녀의 학교생활	2.41( .45)	2.37( .47)	.99
전 체	2.54( .71)	2.49( .64)	1.04	
대 처	정서적 대처	2.98( .52)	2.90( .46)	2.19*
	문제해결적 대처	3.42( .62)	3.09( .51)	7.84***
심리적 안 녕	생활만족도	3.01( .59)	3.18( .62)	-4.39***
	우울	3.06( .70)	3.01( .76)	.84

\* p<.05    \*\*p<.01    \*\*\* p<.001

된다.

갈등대처에 있어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자녀 모두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은 중간(3.00)을 넘는 수준으로 비교적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간에는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집단이 자녀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서적 대처행동과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에 있어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0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은 평균 3.06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18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자녀의 우울은 3.01로 중간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만족도에서 한부모가족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자녀보다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비해 대처에 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는 자녀가 갖는 삶에 대한 부담감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한경혜(1993)는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처방법에서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한부모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모자녀 상관관계

한부모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모자녀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의 교육수준과 모자녀 모두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우울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홀로된 원인과 모의 문제해결적 대처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 모자녀갈등과 정서적 대처는 .268(p<.001), 문제해결적 대처는 -.136(p<.05), 우울과는 .465(p<.00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모자녀간 갈등시 어머니는 정서적 대처행동을 주로 하며 우울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는 .438(p<.001), 생활만족도는 .175(p<.01), 우울은 -.423(p<.001)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정서적 대처를 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며 특히 우울이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적 대처와 생활만족도는 .241(p<.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와 우울간 상관관계는 -.501(p<.001)로 비교적 높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모자녀 상관관계

모	1	2	3	4	5	6	7	8	9	10
1. 모연령										
2. 모교육수준	-.028									
3. 월평균소득	.004	.350***								
4. 홀로된원인	-.067	-.027	-.059							
5. 홀로된기간	.140	-.002	-.094	.107						
6. 자녀성별	-.028	.086	-.013	-.039	.093					
7. 모자녀갈등	.021	-.043	-.052	.038	-.041	.011				
8. 정서적 대처	-.039	-.079	-.094	.015	-.042	-.100	.268***			
9. 문제해결적대처	-.032	.151*	.083	-.175**	-.045	-.018	-.136*	.438***		
10. 생활만족도	-.047	.214***	.150*	-.212***	.010	-.012	.075	.175***	.241***	
11. 우울	.086	-.191**	-.123	.017	-.142*	-.055	.465***	-.423***	.069	-.501***
자녀	1	2	3	4	5	6	7	8	9	10
7. 모자녀갈등	.014	-.012	-.043	.028	-.019	.008				
8. 정서적 대처	.083	-.072	-.034	.092	.031	.056	.312***			
9. 문제해결적대처	.022	.063	.074	-.098	.021	-.021	-.097	-.051		
10. 생활만족도	-.017	.144*	.097	-.087	-.038	-.099	-.369***	.119*	.339***	
11. 우울	.086	-.219***	-.082	.047	.106	.057	.456***	-.431***	-.136	-.556***

\*p<.05    \*\*p<.01    \*\*\*p<.001

자녀의 경우 모자녀갈등과 정서적 대처는 .312(p<.001), 생활만족도는 -.369(p<.001), 우울과는 .456(p<.001)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모자녀간 갈등시 자녀는 정서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모자녀간 갈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고 우울은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대처와 생활만족도는 .119(p<.01), 우울은 -.431(p<.001)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정서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며 특히 우울이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적 대처와 생활만족도는 .339(p<.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와 우울간 상관관은 -.556(p<.001)으로 비교적 높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자녀 모두 심리적 안녕의 요소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갈등대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우울과 정서적 대처와 긴밀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 대처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 대처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002<r<-.556의 범위로 독립변수들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전의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을 중심으로 모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홀로된 원인, 모자녀갈등,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등의 변인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Durbin Waston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996-2.006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선성 검증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이 10을 넘지 않으므로 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자녀갈등,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등의 변인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Durbin Waston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996-2.006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선성 검증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이 10을 넘지 않으므로 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여성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 갈등과 대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경우 홀로된 원인(β=-.16, p<.01), 문제해결적 대처(β=.15, p<.05), 모교육수준(β=.11, p<.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생활만족도를 22%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이혼보다는 사별한 경우,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모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문제해결적 대처(β=.29, p<.001), 모자녀갈등(β=-.14, p<.01), 모교육수준(β=.10, p<.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생활만족도를 43%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모자녀간 갈등이 낮을수록, 모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주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자녀 모두 문제해결적 대처, 모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모자녀갈등은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모자녀갈등이 감소될 때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모자녀간 갈등 감소와 생활만족을 위해서 모자녀간 관계 개선 및 강화에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어

<표 3> 여성 한부모가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	독립	변인	편모		자녀	
			B	β	B	β
생활만족도		모교육수준	1.86	.11*	1.86	.10*
		월평균소득	1.32	.08	.81	.08
		홀로된 원인#	-2.86	-.16**	-.57	-.03
		모자녀 갈등	-.12	-.01	-.12	-.14**
		정서적 대처	-1.77	-.09	.87	.05
		문제해결적 대처	3.24	.15*	6.24	.29***
		F	15.16***		23.30***	
	R²	.22		.43		

(#가변수 : 사별=0, 이혼=1) \* p<.05 \*\* p<.01 \*\*\* p<.001



머니의 경우 홀로된 원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혼보다는 사별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모자녀 모두에게 문제해결적 대처가 서로의 생활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생활만족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는 선행연구(한경혜, 1993; 정현숙, 1993; Berman & Turk, 1981; Weiss, 1979)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며 이들 여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Demo와 Acock(1992), Gove와 Shin(1989) 등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이해도 및 자녀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로 설명된다.

2) 여성 한부모가족의 우울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과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경우 모자녀 갈등( $\beta=.32$   $p<.001$ ), 정서적 대처( $\beta=-.18$   $p<.001$ ), 모교육수준( $\beta=-.15$ ,  $p<.01$ )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을 16%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모자녀간 갈등이 많을수록, 정서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모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모자녀갈등( $\beta=.37$ ,  $p<.001$ ), 정서적 대처( $\beta=-.25$ ,  $p<.001$ ), 모교육수준( $\beta=-.23$ ,  $p<.001$ ), 문제해결적 대처( $\beta=-.09$ ,  $p<.05$ ),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을 35%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모자녀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모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

났다.

우울에서 모자녀 모두 모자녀간 갈등, 정서적 대처, 모교육수준이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서로간의 불일치가 높고 갈등이 많은 경우,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갈등이 있는 경우 자녀의 복지가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Amato(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갈등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문제해결력이 낮아 우울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Demo & Acock, 1996; Gove & Shin, 1989)과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

한편 주로 감정표현방법들로 구성된 정서적 대처는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Berman과 Turk(1981)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우울감소에 정서적 대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이성적이고 문제해결적 대처방법은 아니나 감정표현관련 대처방법이 우울감소에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심리적 안녕향상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적 대처와 정서적 대처 모두 균형있는 대처행동이 필요하며 이들 대처방법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모자녀 갈등, 대처(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와 심리적 안녕(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일반적인 경

<표 4> 여성 한부모가족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	독립	변 인	편 모		자 녀	
			B	$\beta$	B	$\beta$
우 울		모교육수준	-2.36	-.15**	-4.12	-.23***
		월평균소득	-.38	-.02	.72	.04
		홀로된 원인#	-.59	-.03	-.54	-.03
		모자녀갈등	4.93	.32***	6.48	.37***
		정서적 대처	-3.49	-.18***	-5.24	-.25***
		문제해결적 대처	-.98	-.05	-2.13	-.09*
		F	13.83***		26.38***	
	R <sup>2</sup>	.16		.35		

(#가변수 : 사별=0, 이혼=1) \* $p<.05$  \*\*  $p<.01$  \*\*\*  $p<.001$

향과 차이를 파악하고, 어머니와 자녀간의 변인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모자녀갈등과 대처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갈등의 전체점수는 중간(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모자녀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갈등대처에 있어 어머니와 자녀 모두 중간을 넘는 수준으로 비교적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집단이 자녀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서적 대처행동과 문제해결적 대처행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에 있어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01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은 평균 3.06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18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자녀의 우울은 3.01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서 어머니집단과 자녀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처는 어머니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만족도에서는 자녀가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족 어머니의 생활상 다양한 역할과중으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과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둘째, 한부모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의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어머니와 자녀 모두 모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모자녀갈등과 정서적 대처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정서적 대처는 우울에, 문제해결적 대처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 갈등대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머니나 자녀에게 모자녀갈등에 대한 대처교육과 프로그램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과 대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의 경우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이혼보다는 사별한 경우, 모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문제해결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모자녀간 갈등이 낮을수록, 모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설명력은 각각 22%, 43%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자녀갈등과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의 경우 모자녀간 갈등이 많을수록, 정서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모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모자녀간 갈등이 많을수록,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모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설명력은 각각 16%, 35%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주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 문제해결적 대처, 모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는 모자녀갈등이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모자녀갈등이 감소될 때 생활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어머니의 경우 홀로된 원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혼보다는 사별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자녀와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우울에 주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 갈등과 모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인지적 차원에서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모자녀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우울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 모자녀갈등은 모보다는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어 독립을 추구하려는 청소년기 자녀에게도 가정내 어머니의 존재는 위안과 의지의 대상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가족안에서의 중추적 존재인 어머니와의 갈등이 사라질 때 자녀에게 주어지는 생활만족도는 더 큰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의 우울에 모자녀간 갈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는데 이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자녀간 갈등이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그 갈등에 대한 대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모색이 요구되며 실천 현장에서 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해결 등의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대처의 경우 우선 생활만족도에 문제해결적 대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방식을 행할 때 생활만족도는 향상되었으며 또한 우울에 있어서는 정서적 대처를 사용할 때 우울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각 대처행동이 심리적 안녕의 다른 영역에 긴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대처방법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처행동훈련 프로그램과 정보전달이 강조되어야 하겠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에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셋째, 모의 교육수준은 심리적 안녕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Demo & Acock, 1996; Gove & Shin, 1989)에서 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심리적 안녕이 높게 나타났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교육수준은 자신의 삶에 대한 조망, 자존감, 안정감,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심리적 안녕과 연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비단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제외하더라도 여성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인 교육이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교육이나 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한부모가족 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모자녀간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녕 증진방법 등에 관한 부모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홀로된 원인에 따라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보다 이혼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을 벗어난 것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대안 마련에 있어서는 이혼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자조집단 관계망을 통한 상호지지의 활성화방안 등이 지원되어야 하겠다. 또한 한부모가족 어머니에게 재혼에 관련된 정보제공과 재혼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실시도 제안해 본다.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복지관은 물론이고 여성단체, 민간단체,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서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등의 실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기관 및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동주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설립, 다양한 교류의 장인 인터넷사이트 개발 등과 같은 사회의 공식적 지지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원인별 분석, 변인간 경로유형 등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질적 방법을 통한 탐색적 연구 등을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주제어 : 한부모가족, 모자녀갈등, 대처, 심리적 안녕

## 참 고 문 헌

- 권복순(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 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권, 5-37.
- 김영희(1995). 편모가정내의 자녀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김영희·김갑숙·최외선(1995). 편모가정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13-128.
- 성정현(2002). 이혼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제 9호, 31-53.
-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된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권, 295-320.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10호, 37-66.
-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장재정(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정수경(2001). 편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권, 288-317
-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05-154.
- 정현숙·서동인(1996).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 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96 가정 복지세미나, 33-64.
-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 주소희(2002). 이혼가정자녀의 부모이혼 후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성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 9호, 77-106.
- 최선화(2000). 편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또래 집단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6호, 187-214.
-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권, 377-395.
- 통계청(2003).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79-104.
- Amato, P.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 Theories, hypothesis, and empirical support.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pp. 23-38.
- Andrew, F.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Press.
- Barber, B.K.(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pp. 375-386.
- Berman, H.W. & Turk, C.D.(1981). Adaptation to divorce :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79-189.
- Billings, A.G. & Moos, R.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pp. 877-891.
- Booth, A. & Amato, R.(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pp. 396-407.
- Bradburn, N.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Bronstein, P., Clauson, J., Stoll, M.F., & Abrams, C.(1993).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Family Relations*, 42(3), pp. 268-276.
- Burden, D.S.(1986). Single parents and the work setting : The impact of multiple job and homelife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5(1), pp. 37-43.
- Bursik, K.(1991). Correlates of women adjustment during the separation and divorce process. *Journal of Divorce*, 15, pp. 137-161.
- Cherlin, A.J., Furstenberg, F.F. Jr., Chase Lansdale, P.L., Kierman, K.E., Robins, P.K., Morrison, D.R. & Teitler, J.O.(1991) Longitudinal studies of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in Great Britain and United States. *Science*, 252, pp. 1386-1387.
- Clark, P.G., Siviski, R.W., & Weiner, R.(1986). Coping strategies of widowers in the first year. *Family Relations*, 35, pp. 425-430.
- Demo, D.H. & Acock, A.C.(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pp. 388-407.
- DeGarmo, D.S. & Kiston, G.C.(1996). Identity relevance and disruption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for widowed and divorc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pp. 983-997.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pp.542-575.
- Doherty, W.J., Su, S., & Needle, R.(1989). Marital disrup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A pane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pp. 72-85.
- Fine, A.M., Mckenry, C.P., Donnelly, W.B., & Voydanoff, P.(1992). Perceived adjustment of parents and children : Variations by family structure, race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pp. 118-127.
-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J.(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pp.992-1003.
- Furstenberg, F.F., & Teitler, J.O.(1994).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 What happens to children of divorce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5, pp. 173-190.
- Gove, W.R. & Shin, Hee-Choon(1989).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d and widow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pp. 122-144.
- Greene, R.W. & Feld, S.(1989). Social support coverage and the well-being of elderly widows and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pp. 33-52.
-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1998). Windows on divorce : Before and after. *Social Science Research*, 27, pp. 329-349.
- Henry, C.(1994).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 family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4), pp. 447-455.
- Hetherington, M. and Anderson, E.(1989). Marital transition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Hetherington, M., Cox E., & Cox, R.(1978). The aftermath of divorce in J. Stevens & M. Matthews(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 (pp. 149-176). Washington, DC :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etherington, E.M. & Clingempeel, W.G.(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7. No. 2-3).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therington, E.M. & Stanley-Hagan, M.(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40(1), pp.129-140.
- Kiston, G.C., & Morgan, L.A.(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pp. 913-924.
- Kline, M., Johnston, J.R., & Tschann, J.(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 A model of children's post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pp. 297-309.
- Kopp, R.G. & Ruzicka, M.F.(1993). Women's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Reports*, 72, pp. 1351-1354.
- Machida, M.S. & Holloway, D.S.(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d mothers perceived control over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ost-divorce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40(3), pp. 272-278.
- Marks, N.F.(1995). Mid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6(1). pp. 5-28.
- Mastekaasa, A.(1994).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dissolution select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15(2), pp. 208-228.
- Olson, D.H. & Barnes, H.L.(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St. Paul : Univ.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Parker, L.(1994). The role of workplace support in facilitating self-sufficiency among single mothers on welfare. *Family Relations*, 43(2), pp. 168-173.
- Peterson, J.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pp. 295-307.
- Price, S.J. & McKenry, P.C.(1988). Divorce. Newbury Park : Sage.
- Radloff, L.(1977). The CED-S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pp. 385-401.
- Risman, B.J. & Park, K.(1988). Just the two of us :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ingle-parent hom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pp. 1049-1062.
- Shapiro, A. D.(1996). Explain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a sample of remarried and divorced persons. - The influence of economic distr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7(2), 186-203.
- Simons, R.L., Whitebeck, L.B., Beaman, J., & Conger, R.D.(1994).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by nonresidential fathers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2), pp. 356-374.
- Umberson, D.(1989). Relationship with children :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pp. 999-1012. Basic Books.
- Webster-Stratton, C.(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pp. 417-430.
- Weiss, R.S.(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pp. 97-111.
- White. L.K.(1992).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and remarriage on parental support for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3, pp. 234-250.

(2004. 06. 28 접수; 2004. 08. 10 채택)